

2021년도 생통강좌

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다시 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

2021년 11월 2일 ~ 11월 1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3시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 문화탐방 ----
---	-------------------------------------

- 주 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 관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광주장애인문화협회,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극단연인, (사)대동문화재단, (사)전통연희놀이연구회, 오월어머니집,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장애인미술협회
- 후원 : 광주광역시

■ 프로그램

구분	일시	주제	강사진
문화 강좌	11.02(화) 15:00	문화전당과 광주! 시민은 무엇을 하나?	전 고 필 (전라도지오그래픽 소장)
	11.04(목) 15:00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 성 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11.09(화) 15:00	달라진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김 하 림 (조선대 명예교수)
	11.11(목) 15:00	지역 문화기관들과 문화전당!	항 풍 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답사	11.16(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담양 일원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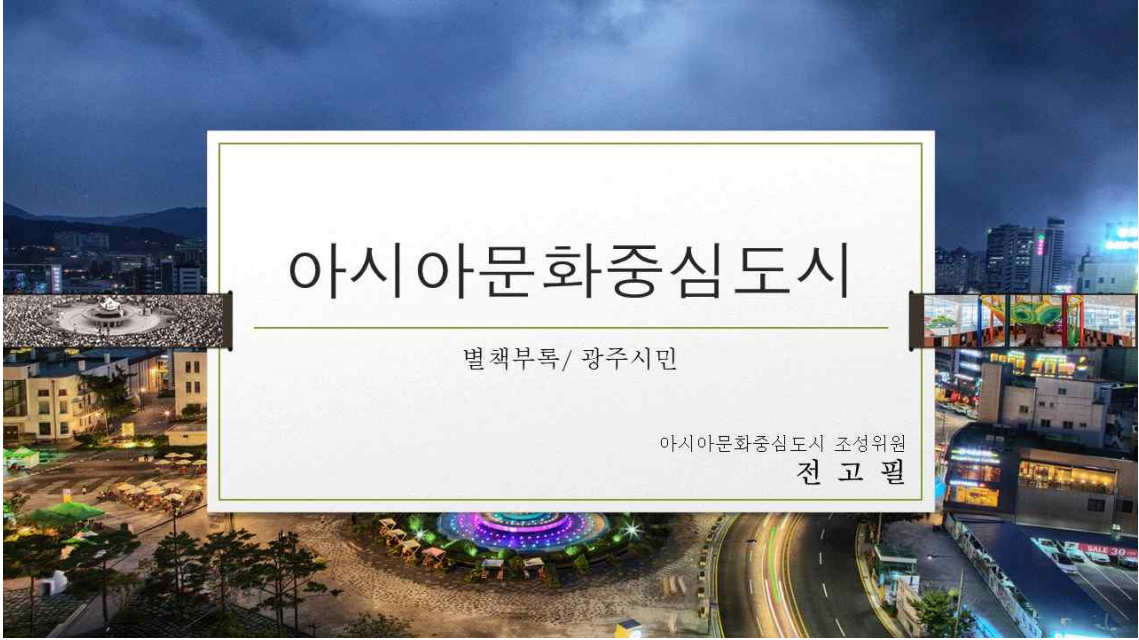
1. 제1강좌	문화전당과 광주! 시민을 무엇을 하나? -----	07
2. 제2강좌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전당,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23
3. 제3강좌	달라진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	41
4. 제4강좌	지역 문화기관들과 문화전당! -----	53

제1강좌

문화전당과 광주! 시민은 무엇을 하나?

전 고 필

(전라도지오그래픽 소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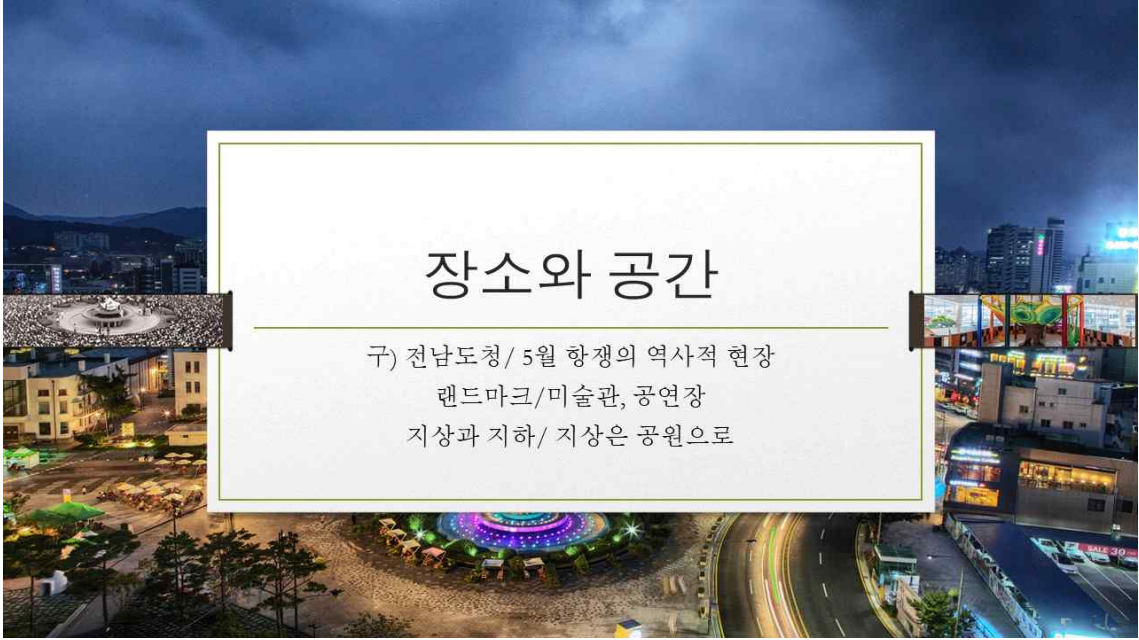
별책부록/ 광주시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전 고 필



문화중심도시의 출범

2002년 노무현 후보 광주를 아시아문화수도로
2006년 9월 2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5년 9월 4일 부분 개장. 11월 25일 완전 개장



장소와 공간

구) 전남도청/ 5월 항쟁의 역사적 현장
랜드마크/미술관, 공연장
지상과 지하/ 지상은 공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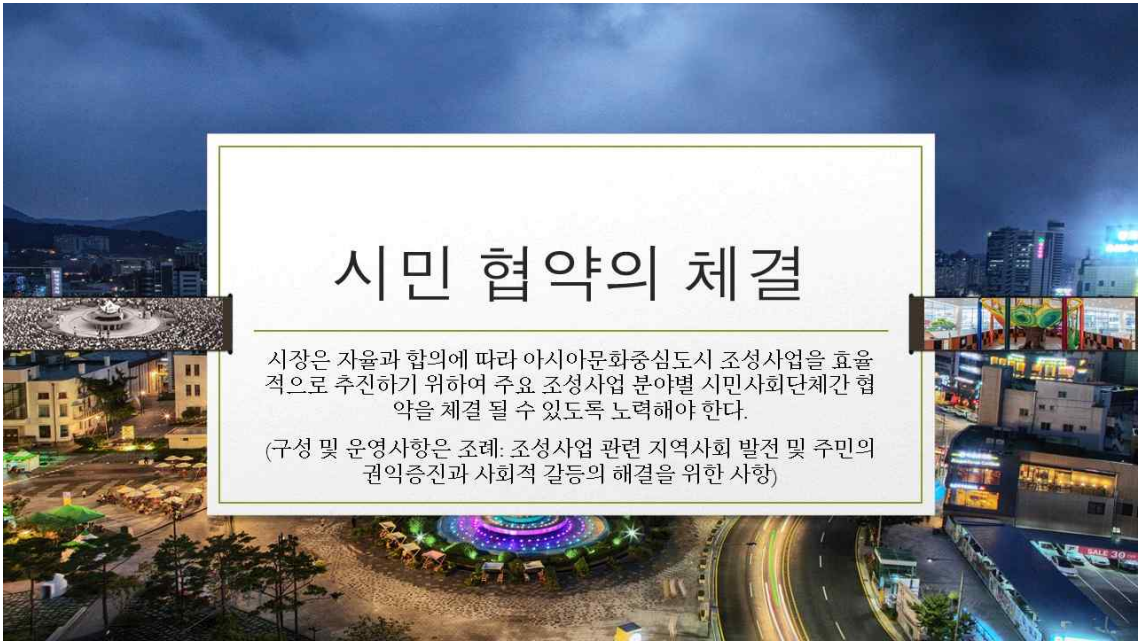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능과 역할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아시아문화의 연구, 창조, 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
례가 실시되는 지역 단위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국가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 강구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시책을 수립할 때는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 단체는 협조하여야 함



시민 협약의 체결

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
약을 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성 및 운영사항은 조례: 조성사업 관련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기본 시책 사항, 문화예술, 시민문화 및 생태문화 진흥사항,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항, 조성과 관련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산업 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문화적 통합성과 기능적 연계성을 지닌 광주광역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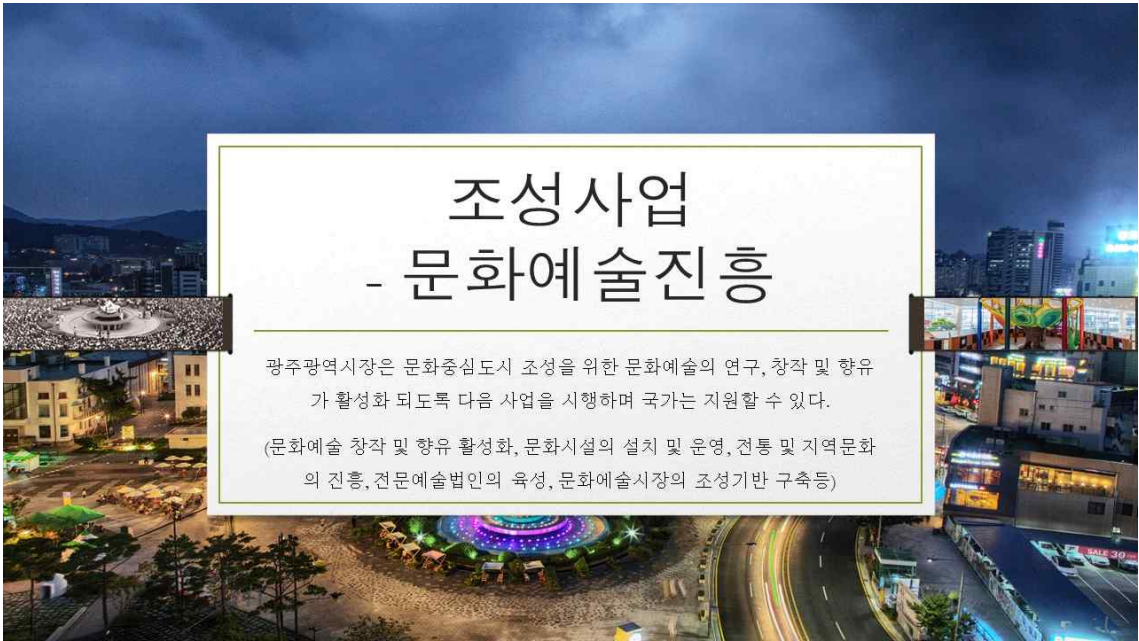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성 계획

5년 마다 수정 보완하고 이러한 사항은 지체없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광역시장, 관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



연차별 실시 계획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연차별 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은 실시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성사업 - 문화예술진흥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 되도록 다음 사업을 시행하며 국가는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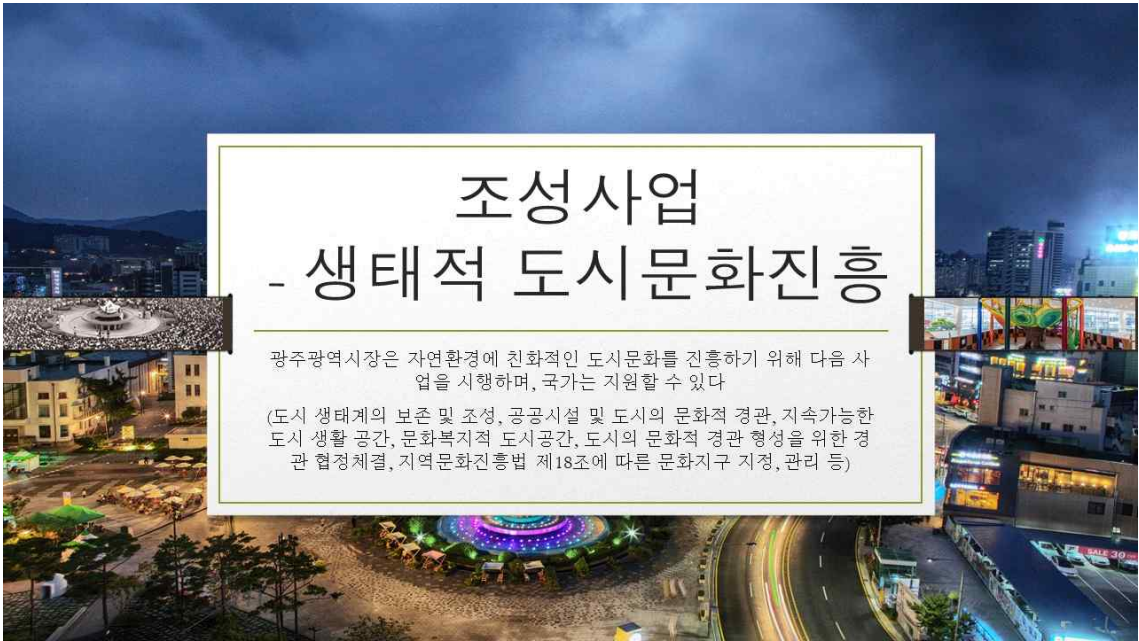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등)



조성사업- 시민문화 진흥

광주광역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조력 함양을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창조,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시민과 국대 외 문화전문가의 공동연구와 문화프로그램, 노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활동 등)



조성사업 - 생태적 도시문화진흥

광주광역시장은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하며, 국가는 지원할 수 있다

(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 공간, 문화복지적 도시공간, 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체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관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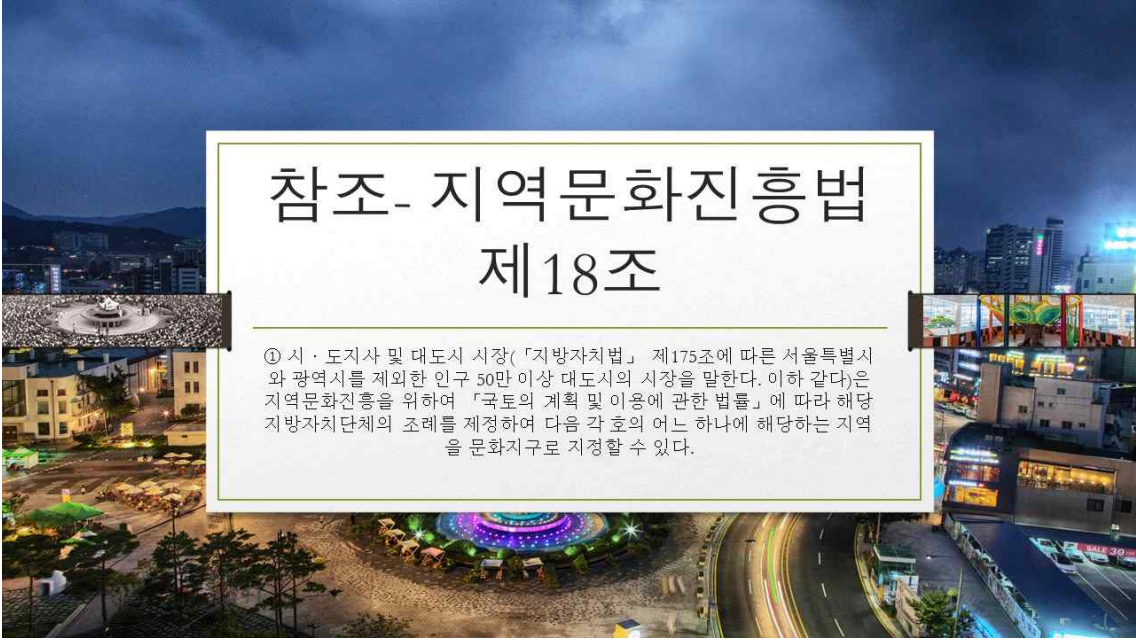
㉕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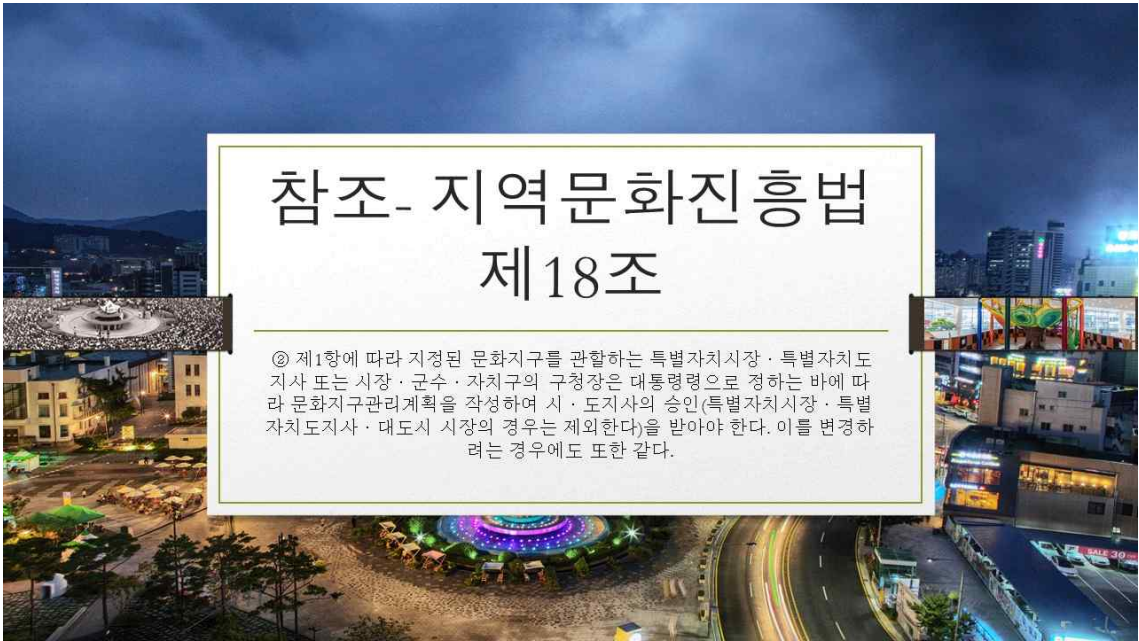
참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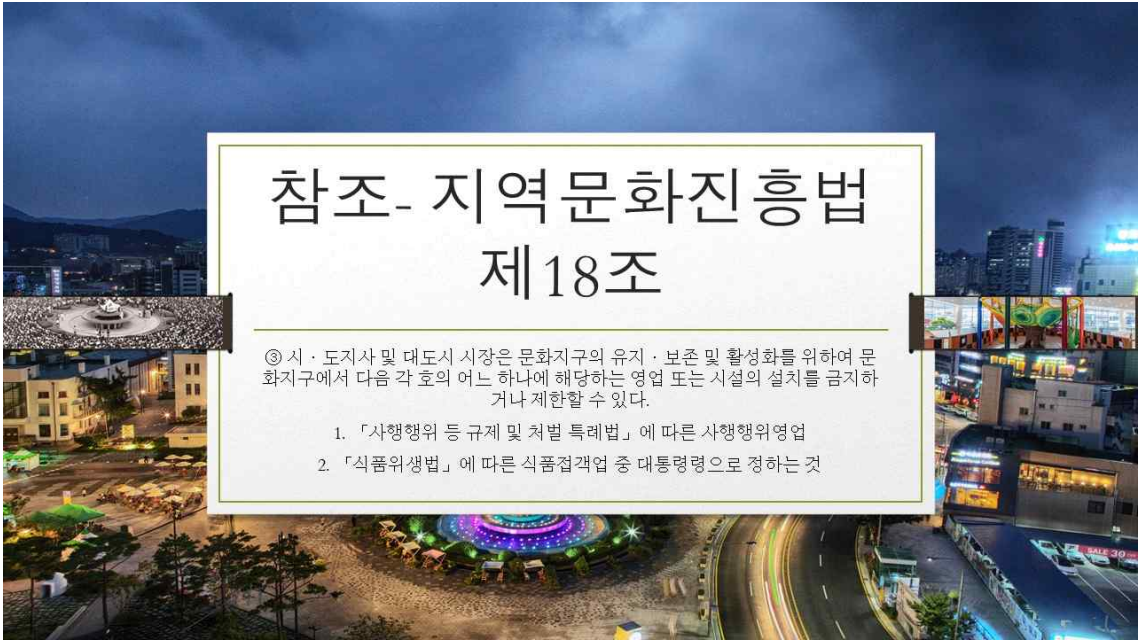
참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참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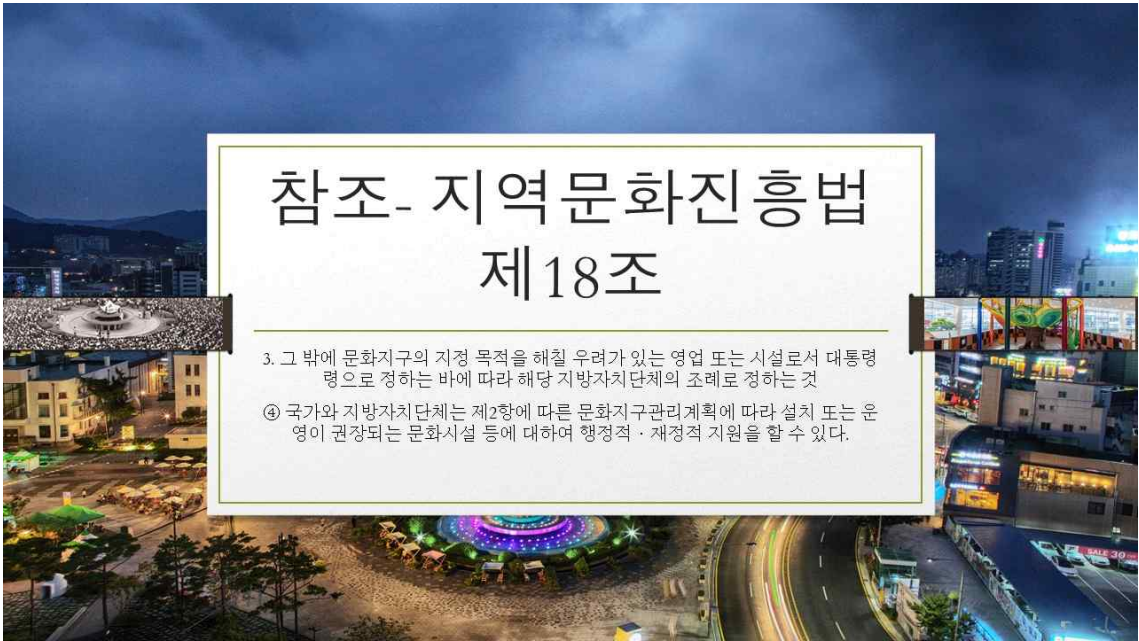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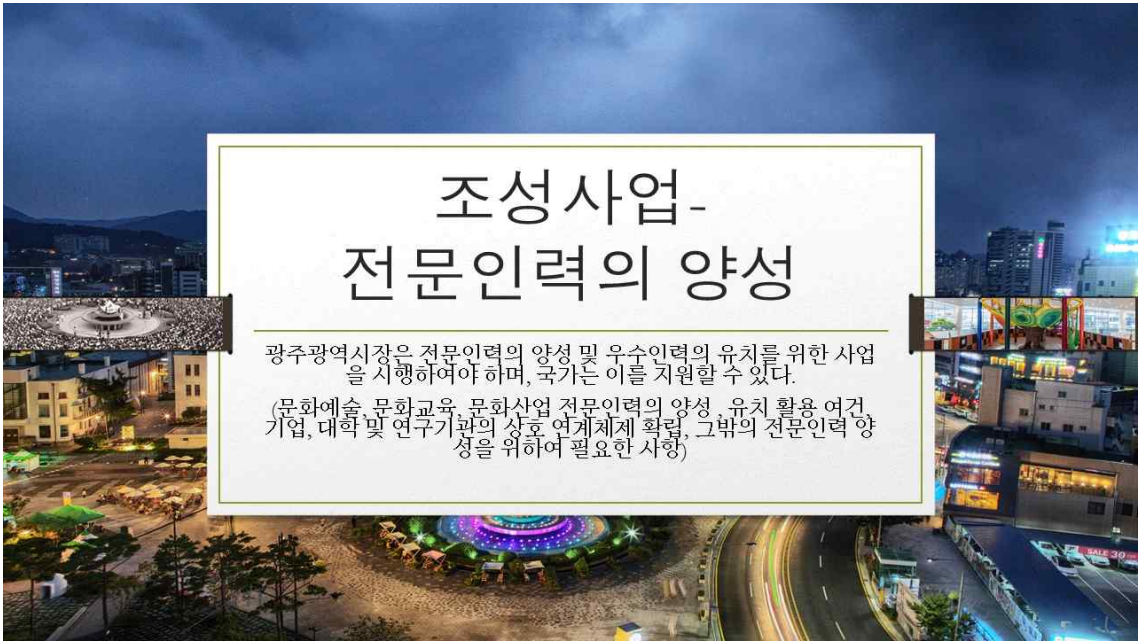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성사업- 시민문화교육

광주광역시시는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미디어교육,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교육 등)



조성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광주광역시장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 문화교육,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활용 여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체제 확립, 그밖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성사업- 문화교류 협력의 활성화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 형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관련 기관 단체 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문화 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이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지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 유치 지원, 아시아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외국 도시, 기업, 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등)

어디에 시민이 있어야 할지

시민협약의 체결은?

전당의 운영 프로그램의 향유자로서 시민

전당의 근무자와 시민간의 만남은?

문화도시의 근원인 남도의 들과 산과 바다가 아시아와 만나는 접점은?

아시아문화도시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력의 양성은?



어디에 시민이 있어야 할지

- 문화산업과 투자부분에서 참여 방안은?
- 종합계획의 수정 시기에 시민 참여는?
- 연차별 실시계획은 어디에서 수립되고 있는지?
- 전당 내부의 시설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 국가 주도 사업으로 이행된 본 사업이 과연 광주와 조응할 수 있는지?



망연자실-유구무언

별책부록을 넘어선 광주시민

제2강좌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 성 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지역과 소통하는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 성 구(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1. 들어가며

본 글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발전적 미래와 세계적 문화창의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위해 지역과의 소통,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복합문화시설의 가치 인정은 세계의 여러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문화도시 조성 사례는 없었으며, 또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문화적이라는 것을 그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 도시만의 특유한 상품성이며, 도시 정체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 있는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시답다' 즉, 광주의 경우 '광주답다'라는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여러 분야에서 발현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역사, 문화, 경관, 산업 등과 같이 전국적인 수준 보다는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고 지역적인 수준에만 영향이 파급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¹⁾ 특히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개성과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도시 상에서 탈피하여 고유하고 개성 있는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건국 이래 최대의 문화프로젝트로서 광주의 역사적 유산과 예술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국가의 문화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시도된 국책사업으로서, 이후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으며, 그 영향도 만만치 않아서 전국 곳곳이 무슨무슨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입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도시가 속출하도록 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광주에 대한 특혜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사업은 지역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서 국가차원의 문화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국가적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즉, 문화중심도시의 입지는 광주에 있지만 향유대상은 전 국민, 더 나아가 아시아인과 세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1) 정성구, 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하여, 광주발전연구원 포커스광주 2009-15호, p.8

2) 정성구, 새 정부의 문화정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광주발전연구원 포커스광주 2008-3호, p.6

2007년 법정계획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의 발표와 2015년 화전당의 개관은 우리 지역의 문화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많은 기대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후 문화전당 콘텐츠 계획을 비롯하여 일련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과정은 그 추동력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또한 지역과의 괴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과의 소통이 없는 복합문화시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 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써, 그리고 시민을 비롯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써의 문화전당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점을 바탕으로 전당과 시민과의 소통, 전당 외부공간의 변용, 전당을 중심으로 한 주변 공간과의 연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합문화시설이 세계화를 위해서 왜 지역과 소통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며, 현 시점에서의 문화전당의 역할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의미 창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조성사업의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다 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불과 몇 년 연장한 현 시점에서 복합문화시설의 성공적 정착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와의 상생,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전당과 시민과의 소통방안과 외부공간과의 연계방안으로 제시되는 여러 이슈들은 발표자의 공부 영역이 도시공간의 형성과 변용에 관심을 두는 도시설계 이기에 주로 문화전당과 전당 주변의 공간계획에 치우칠 수 있음을 밝힌다.

2. 문화전당의 지역소통활동

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표 4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p.84)

연도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횟수(회)	참여(명)
2019	웹툰 공모전 <오월이야기>	4.1~5.31	전국민	1	44
	가치 나눔 프로그램 <찾아가는 기념관>	3.2~11.30	광주·전남북 소재 초·중·고등학생	39	1,518
	시민참여형 오월 콘텐츠 <어머니의 노래>	10.1~12.31	지역작가 및 오월가족	75	30
2020	콘텐츠 공모전 <5월, 평화를 노래하다>	3.20~12월	전국민	1	153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오월스토리퍼즐>	4.1~12.31	사회취약계층 및 국민	9,412	1,024
	시민참여형 오월 콘텐츠 <어머니의 노래>	10.1~12.31	-	-	12
	'열흘간의 나비떼' 전시 콘텐츠 디지털화 사업	10.1~12.31	-	-	-

물론 2015년 개관 이후 지역 문화 관계자들의 수많은 의견과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입장 견지로 지역 상생프로그램의 원만한 시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웹툰공모전이나 콘텐츠공모전 등을 일반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찾아가는 기념관은 전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전당에서 개발한 교구재 '오월스토리퍼즐'을 활용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고, '어머니의 노래'는 작가와 오월가족이 일대일 매칭되어 시와 에세이집을 만든 것이다.

이외에 아시아문화포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음악회 '그날이 오면', 비엔날레 특별전 등의 장소제공 및 공동개최 등도 지역과의 소통이라면 소통이다.

시민아카데미, 인문강좌, 기타 소규모 강연과 체험프로그램 등 시민대상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물론 있다.

표 5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2019~2020) (앞책, p. 104)

연도	과정명	기간	장소	횟수	참여인원
2019	시민아카데미	5월~11월	아카데미실	21강	440명
	오픈아카데미	11~12월	메이커스 스페이스 외	4종	205명
	인문강좌	4월~11월	극장3	8회	1,479명
	초청강좌	5~7월(상), 8월~11월(하)	국제회의실	8강	581명
	문.전.성.시	4월~10월	강의실 2	6회	320명
2020	시민아카데미	5월~11월	아카데미실	21강	301명
	오픈아카데미	11월	아카데미실	4종	71명
	인문강좌	4월~11월	극장3	8강	668명

이상과 같이 그간 전당에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은 전당이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열린공간으로서 상호 소통하고 상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회성 또는 전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동적 참여나 강좌개설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 그리고 시민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문화전당을 지향한다.

3. 첫 번째 논의 : 왜 소통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문화전당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역과의 소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문화시설 관련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문화부문에 이루어지면서 문화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양적 공급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은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문화적 삶을 실현하고 생활문화의 강조로 국민들의 문화활동의 근간이 되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시설이 문화복지 차원의 공공서비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입지문제를 공공서비스 시설에 포함하여 고려하게 되었으나,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는 이용자의 편의 보다는 공급자의 편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서비스 시설이 어느 한 지역에 입지하면 그것으로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이용자의 필요나 요구, 선호, 접근기회, 형평성 등을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있었다.³⁾

불행하게도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에도 종합계획상에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과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성적 행정행위에 의해 그 주변에 문화적 영향력 또는 문화적 파급성을 가지지 못하는 하나의 문화적 섬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문화도시로 성공한 많은 사례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도심지에 들어서는 경우, 더구나 그것이 그 도시의 역사적 공간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 이 시설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소통하기 위한 장소로 구축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도시와 시민들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⁴⁾ 이것이 문화전당이 지역과 소통, 연계해야 할 이유이다.



그림 29 도심의 역사적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소통하는 장소로 구축되는 문화전당

가. 소통과 연계 차원에서의 문화전당의 역할

복합문화시설은 복합적인 활동을 건축공간에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건축적인 차원은 물론, 주변 환경과 광범위하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도시적 차원, 지역과 도시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 한다.⁵⁾ 본 글에서는 지역과의 소통과 연계 측면에서 문화전당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3) 진광배, 이낙운, 춘천시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시설 활용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1호, p.125
 4) 위의 사례로는 "정성구, 지역근대유산을 활용한 광주의 문화적 도시재생,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심포지엄, 일본 나가사키, 2009. 10" 참조
 5) 심재춘, 윤대한, 사례를 통해본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5권 1호, p. 11-12

표 6 소통과 연계 측면에서 본 문화전당의 역할

-
- 모든 계층의 참여를 위한 민주적 문화공간 (사회적 차원)
 - 새로운 양식의 문화와 예술이 만들어지고 이해되는 공간 (문화적 차원)
 - 지역경제와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심적 공간 (경제적 차원)
 - 지역문화의 커뮤니티 공간 (도시·건축적 차원)
-

○ **모든 계층의 참여를 위한 민주적 문화공간 (사회적 차원)**

모든 계층의 사회문화적 참여와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작용하고 동시에 문화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실험성, 창의성,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고 축제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문화 유형간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지향하고, 특정 계층의 배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의 참여를 위한 민주적 문화공간으로 역할 한다.

○ **새로운 양식의 문화와 예술이 만들어지고 이해되는 공간 (문화적 차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만나서 변형과 변화의 반복에 따라 새로운 양식의 문화와 예술이 만들어지고 이해되는 공간이다. 즉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 기능, 교육·정보자료의 아카이빙 기능, 회의나 영화상영 등 문화활동기능, 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전반적 활동을 통합한 공간이다.

○ **지역경제와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심적 공간 (경제적 차원)**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전시, 공연공간 등 복합문화시설의 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근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와 연계한 오피스, 호텔, 도심 쇼핑몰과 같은 상업시설인 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그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심적 공간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랜드마크 자원으로 작용하여 문화관광의 시·중점으로 역할 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의 기능 수행과 더불어 지역경제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문화의 커뮤니티 공간 (도시·건축적 차원)**

문화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계 하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 지역문화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문화전당과 같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접근이 편리하거나 상징적인 입지에 위치하여 주변지역의 도로 및 교통체계 변경 및 신설,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주변 건축물의 정비 등 도시환경 및 도시구조를 재구축하게 된다. 문화전당은 광주 도심의 중심으로서 교통 접근이 편리하고 상징적인 위치에 입지하여 주변 건축물의 정비,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등 도시환경을 변화시킨다.

나.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외부공간의 활용과 연계 필요성

전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화전당만의 독특한 체험이 가능한 외부공간 조성도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외부공간은 기본적으로 내부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개방되어 공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랜드마크 역할과 동시에 마케팅 측면의 기능적 역할을 한다. 또한 내부공간의 기능적이고 능동적인 공간에서 외부공간은 적극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도시 차원에서 그 도시의 개성적이고 특징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복합문화시설의 외부공간은 도시를 대표하는 장소로서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창조성 향상을 통한 도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철강과 석재산업의 도시였던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비정형의 티타늄 패널과 석회암으로 외피를 구성하고 기존 도시산업의 이미지를 미술관 외부 이미지에 형상화하여 그 지역의 개성과 역사를 담았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의 중심 공간으로서 이용자와 지역민에게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건물이나 주변 환경 자체가 지역의 유형적 문화시설인 동시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⁶⁾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시민들이 즐겁게 쉴 수 있는 공공공간의 설정을 모토로, 다양한 사람들이 미술관 내부와 외부에서 만남과 대화의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의도하였다. 그 시작부터가 시민들의 쉬운 접근과 방문객들의 개방적인 교류가 현상설계의 주제였으며, SANNA(Kazuyo Sejima & Ryue Nishizawa)의 현상 당선 이후 설계과정까지 상호성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 짐으로써 세계적인 시설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 이전 가나자와시 인구 46만의 3배에 달하는 연간 15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며, 설계자에게 프리츠커상을 안겨준 작품이 되었다.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외부공간의 활용과 연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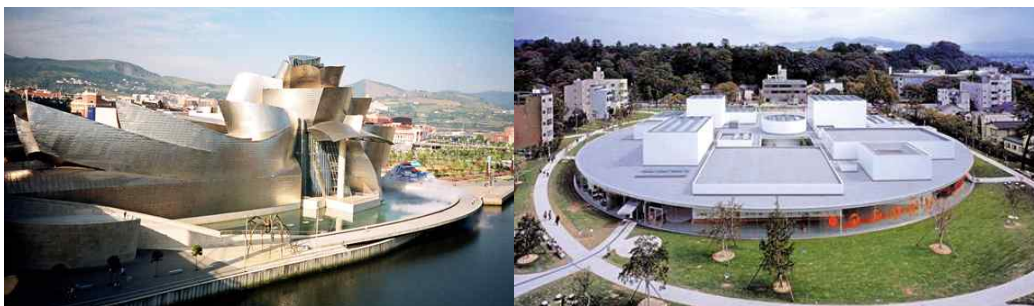


그림 30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과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외부공간 연계

6) 김은지, 우성호, 감성적 특성을 적용한 복합문화시설의 외부공간 가치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제41호, p. 45

이상의 빌바오 구겐하임의 사례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사례 모두 외부공간의 비일상성이 이용자로 하여금 낯선 공간의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하여 공간에 몰입하게 하고 흥미로움과 함께 풍부한 체험을 하게 한다.

최근 시도되는 하늘마당에서 전당내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신설이나 투명난간 교체 등은 접근성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 의한 적극적 소통과 연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하늘마당에서 전당 내부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신설공사 진행중

다. 지역과의 소통, 지역자원 활용으로 성공한 문화도시 사례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도시 구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셰필드, 글래스고, 리버풀, 스페인의 빌바오 등은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셰필드는 철강과 금은 세공업으로 성장한 도시였으나 1980년대 급속한 쇠퇴를 겪었다. 도시개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해진 셰필드는 철도역과 할람대학의 중간에 CIQ(문화산업단지, Cultural Industrial Quarter)를 조성하였다. 각종 미디어 및 문화관련 시설을 도심 내부에 유치하고, CIQ는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과 연구의 기반을 형성하고 도시에는 일상적 문화소비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비전의 제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계획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접근,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했다.

글래스고도 역시 세계적 산업도시였으나 1960년대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러 도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다. 예컨대 '술에 찌든 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모한 글래스고는 스코디쉬개발원(SDA: Scottish Development Committee)과

글래스고위원회(Glasgow Development Committee)가 중심이 되어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방안을 수립한 다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과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Glasgow's Miles Better' 캠페인을 전개했다. 1990년엔 유럽문화도시 선정과 맞물려 도시를 문화적으로 변모시키고 각종 축제와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했다. 글래스고는 기존 문화 자원과 시설을 강화하여 광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스페인 북동부 바스크주의 수도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도시 전체로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전개하였다. 빌바오의 사례도 역시 랜드마크적인 문화시설과 관련 문화시설의 집적으로 인한 일정 구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지역과 연계한 통합적인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문화도시 성공사례는 해당도시에 기반을 둔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4. 두 번째 논의 :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지금까지 복합문화시설과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문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성공요소로 주목하고, 소통과 연계 측면에서 문화전당의 역할을 재정의 하였으며,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외부공간의 활용과 연계가 왜 요구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성공한 문화도시 사례를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고 물리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가. 문화전당과 지역 간 소통기구 설치

문화전당이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당과 지역 간 소통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전술한 글래스고의 사례에서 해당도시의 지역계획과 문화영역의 충돌 혹은 영역의 혼재가 '지역위원회' 등과 같은 문화적인 조직을 통해 해소되었다⁷⁾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버밍햄의 경우 시의회와 중앙TV가 설립한 지역 미디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시를 변화시켰다. 지역 단위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문화적 구상을 하는 기구의 설립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화환경을 창출하는 한편, 단지 문화를 위한 환경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는 문화 도시화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7) 라도삼, 문화환경의 창출과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문화정책논총, pp. 95~9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과 ‘문화도시협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및 문화전당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갈등들을 조정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역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주는 도시발전 정책에 있어서 ‘문화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지역위원회’이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이나 디자인진흥원 등과 같은 조직은 지역 개발에 문화예술적 요소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도시의 미관과 경관, 생태를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전당 차원의 방안

표 3에서 서술한 ‘소통과 연계 측면에서의 전당의 역할’을 바탕으로 전당 차원에서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518의 경험을 세계시민 공동체의 경험으로 승화

지금도 물론 그러하지만 문화전당이 광주와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518의 가치와 경험을 광주만이 아닌, 그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승화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518을 비롯한 아시아의 민주인권항쟁의 역사가 당사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5·18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멀리 동학 농민전쟁에서 시작해 구한말의 의병전쟁, 일제강점기의 3·1운동과 광주 학생운동, 그리고 해방 후의 4·19 등의 역사를 잇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한다. 공간적인 면에서도 광주라는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직접 간접으로 전국적이고 세계사적인 문맥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된 사건이라 인식될 필요가 있다. 518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시콘텐츠의 색채 전환도 필요하다. 아시아의 민주인권 항쟁의 역사가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 인식되기 보다는 인류의 미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라는 색채 전환이 필요하다.⁸⁾

광주는 아시아 각국이 겪은 식민주의와 독재 경험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극복해낸 저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시민들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소통과 교류를 위한 장을 만들기에 적절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타당성과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에도 중요한 요소로 담겨있다.

8) 2013년 4월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발표한 ‘콘텐츠 기본계획’에서는 ‘아시아는 전쟁터’라고 표현



그림 32 아시아의 시민들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광주
 (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86 필리핀 피플파워, 88 버마 민주항쟁 영화 '더레이디', 89
 천안문사태, 80 518광주민주화운동)

2) 민주평화교류원을 전당의 소통 창구로 활용

민주평화교류원은 분수대광장에 면한 문화전당의 얼굴이자, 대외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이다. 전남도청, 전남도청 회의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상무관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존건물들을 활용함으로써 5개원 중 유일하게 기존 건축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이 어떠한 유용한 물리적 가치와 더불어 좀 더 풍요로운 정신적 가치를 지니기를 기대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문화공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소성이 중요하다. 장소성은 인간이 그 장소의 고유하면서도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요소이다.⁹⁾

9) 김은지, 앞 책, p. 47



그림 33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3) 세계와 소통하는 아시아 인권의 벽, Wall of Asia

문화전당의 파사드 일부에 '아시아의 벽'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인터랙티브한 미디어보드일 뿐만 아니라 광주의 인권과 평화정신, 아시아의 민주인권 현장 사진과 UCC 등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주평화교류원 외벽의 미디어보드에 업로드 되어 전시에 함께 참여하고 이미지뱅크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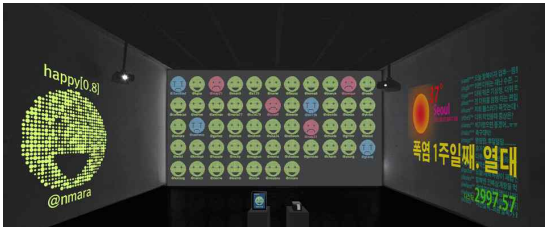


그림 34 2012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SNS 인터랙션 사례



그림 35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크라운파운틴의 미디어파사드 사례

다. 외부공간과의 연계

전술한 사례처럼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외부공간의 활용과 연계는 중요하다.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권역은 광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로서 근대역사의 현장이며 많은 삶의 흔적과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로서 도시의 공간구조상 다양한 활동이 집중된 곳으로, 도시의 성장과 비례하여 그 역할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도심에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공간들이 존재한다. 도심 공원이나 광장, 변화가에 형성된 특화 거리와 같은 공공공간과 카페 또는 클럽 등 예술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의 생산 및 소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도심내 상업공간

등은 도심이용자들의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위한 장으로서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¹⁰⁾

이때 주의해야 할 것도 있다.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공간의 확장은 원도심이 갖는 물리적 환경의 맥락을 존중해야 한다. 도심은 오랜 기간 동안 도시가 형성되고 성장해온 중심지로서 도시의 역사성을 간직한 환경요소들이 풍부하며, 이들 중에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대부분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복합공간의 형태로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규모 시설들은 대형 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가로조직과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가구(block)형태 등 도심이 갖는 독특한 물리적 특징들을 무시한 채 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광주의 근대 역사를 기억하는 문화전당 주변의 학원가 골목길과 가구, 작은 공방과 상점 등의 소멸을 우리는 이미 아프게 경험했다.

전당 외부공간의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인위적 변형을 배제하고, 전당이 가진 입지적 성격, 역사성, 장소성 등을 고려한 의미부여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6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원도심 전경

1) 전당 주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보행자천국 조성

문화전당과 보행권으로 긴밀히 연결되는 문화전당 주차장, 동구청, 충장로 상업지역,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을 포함하여 약 1km² 영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모든 시민과 방문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자천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¹¹⁾ 최근 문화전당 주변은 노후 도심시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행자 통행량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내외국인의 방문객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노후한 가로시설물 및 안전시설 미비로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10) 정성구,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지역 도시재생의 방향,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97호, p.12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의거

전당 주변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도심 재생의 기폭제이자, 광주 문화예술관광의 시작점으로 역할 할 것이며, 그간 미약했던 전당.교류권의 각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연계성을 보행네트워크를 통해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518광장 및 분수대의 활용을 통한 문화전당 외연 확장

5·18광장 및 분수대는 전체 전당계획상 역사적, 공간적, 시간적 상징성을 가지는 입구로서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고, 분수대 자체가 그 장소의 상징적 구조물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광장과 분수대는 5·18의 정신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당과 외부공간의 연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문화전당의 외연 확장 이외에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도심형 문화광장으로의 계획이 수반된다.

런던 트라팔가광장 경우 광장 중간에 분수대와 넬슨제독의 기념비가 위치해 있고, 광주와 같이 분수대 주변을 도로가 둘러싸고 있었으나, 노만 포스터의 계획으로 내셔널 갤러리의 계단부를 연결하여 광장의 프로그램적 확장과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림 37 런던 트라팔가광장과 내셔널갤러리의 연계 사례

사람들이 만나서 교감할 수 있고 문화성을 나눌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거나 카페나 레스토랑 바, 공원 거리 등 자연스럽게 모여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공간을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조성하여 도심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장이다. 이때 새로운 공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존 공간 및 시설과의 연계성을 구축하여 도시민들에게 생활패턴과 매우 밀접한 영역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3) 광주의 서사를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 금남로

문화전당의 진입가로인 금남로에 518의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 조형물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판 '갈레의 시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공간은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지역공동체

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다. 또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이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 도로 등은 과거의 현재를 이어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특성이 있다. 광주는 근대 이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유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금남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진입가로이자, 전당에서 발현되는 문화적 가치와 에너지를 도시 전역에 소통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문화전당은 금남로의 서사적 공간과 결합하여 독특한 공간장을 형성할 것이다.



그림 38 광주의 서사를 담은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금남로와 칼레의 시민들

5. 마치며

지금까지 문화전당과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왜 지역과 소통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위한 문화전당의 역할을 정의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의미창출에 대해 고찰하였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이며 근대역사의 현장인 구 전남도청에 들어섬으로써 광주라는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소통하기 위한 장소로 구축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당과 도시, 전당과 시민들 사이에 매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소통과 연계를 통한 공간적 의미화¹²⁾를 뜻하며, 문화전당의 공간적 의미화는 도시민에게 새로운 휴식과 활동의 공간을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전당이라는 내부 공간과 외부 환경이 직접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문화도시로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시설을 하나의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화된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단순한 파사드가 도시의 개성과 역사를 담은 이미지를 형상화하거나, 특정 공간이 지역문화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되어 지역민들이 애착을 갖게 되어 장소성이 확보되는 의미한다.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은 광주가 가진 정신적·사회적·문화적 가치들이 문화전당이라는 공간이나 전당콘텐츠와 결합하여 광주만의 장소성이나 상징성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도시 전역에 순환되며 광주다움으로써 세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문화전당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지역과 주민은 문화전당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역문화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문화도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제3강좌

달라진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김 하 림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달라진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김 하 림(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1. 무엇이 달라졌는가?
2. 달라진 계획은 무엇인가?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5년 연장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2020년 6월 9일 첫 발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별 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제 시행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문체부는 전당에서 소요되는 전문인력들 및 전당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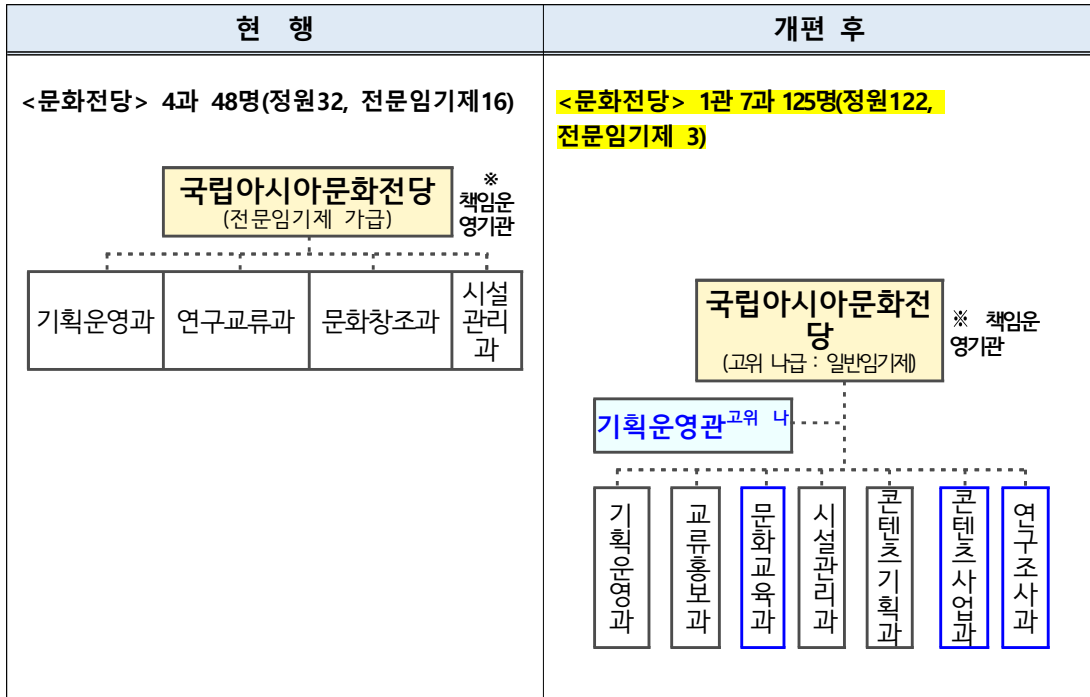
그동안 '문화전당 조직의 이원화'는 전당 내부의 운영 갈등, 리더십 부재, 콘텐츠 부실 등 문화전당을 둘러싼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정부 시기에 개정된 법은 문화전당을 법인에 5년 동안 '부분위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관 5년 동안 전당장도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도 전에 법인화로 내몰릴 상황이었다. 게다가 박정권은 예산도 갈수록 삭감하여 실제적으로 전당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지경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행히 현 문재인정부는 아특별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서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조직 기반 구축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특별법을 개정했다.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상당 정도 해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법을 2031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전당의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당의 콘텐츠 생산과정, 콘텐츠 생산물의 활용 등 모든 분야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의 시행은 국가의 책임아래서 문화전당이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문화적 폭발력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전당조직의 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등과 같은 달라진 부분의 일부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당 조직의 개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1. 3. 23.]

조직의 개편은 투 트랙인 셈이다. 하나는 전당 운영조직을 신설·강화하고, 국가(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전당재단'을 설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익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고, 전당재단을 통한 문화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전당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창조·생산하고, 이 콘텐츠를 전당재단에서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의 개편이므로 실제 운영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달라진 계획은 무엇인가?

- 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 선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현황) 전당의 선순환 구조에 따른 콘텐츠 개발·유통



[그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생산·유통 체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년) 수정사용

○ 전당은 국제교류, 연구·수집, 콘텐츠 창·제작, 콘텐츠 구현(전시, 공연, 교육, 축제 등), 유통에 이르는 선순환적 체계 확보

* 아시아문화의 연구·자원 수집 → 창·제작센터(ACT센터)의 콘텐츠 기획·개발 → 전시·공연·교육 등을 통한 콘텐츠 구현 → 국내외 유통·사업화

→ (한계) △전당에 대한 다양한 요구, △단년도 사업 운영, △콘텐츠 개발의 중장기적 전략 부재 등으로 단기적 성과 치중, 부서 간 유기적 선순환 구조 작동의 어려움 야기

□ (대안)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설정

- 이원적 선순환 체계 마련으로 실행력 담보(조직 전체/각 원별 구분)
 - (조직 전체) 선순환적 구조에 따른 중장기(3~5년) 특화 콘텐츠 기획·개발
 - * (예시) 뉴트로 뮤지컬(~22년 아시아 음악 연구 → ~23년 쇼케이스 → ~25년 본 공연)
 - (각 원별) 아시아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설정
 - * (예시)
 - (21년~22년) 코로나일상 시대 대응 : 포스트휴머니즘('21), 에코비즈니스('22)
 - (23년~25년) 전당 특화콘텐츠 고도화 : 아시아 도시문화-거점도시('23), 아시아 공예품-디자인, 문양('24), 아시아 생활양식-생로병사 관련 의례('25)

□ 연도별 핵심테마 *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5개년 계획 연구

- (코로나 일상시대 대응) '21년~22년
 - ('21년) 포스트휴머니즘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아시아 문화교류사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미래사회 적합한 휴머니즘 재탐색)		기후위기와 우리의 삶 1

- ('22년) 에코비즈니스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아시아 기후난민, 재해건축	에코비즈니스 (Eco business) (문화기술(CT) 기반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기후위기와 우리의 삶 2

- (아시아문화 특화콘텐츠 고도화) '23년~25년
 - ('23년) 도시문화 '아시아 거점도시'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아시아 거점도시 철학 도시 디자인	디지털헤리티지(Digital heritage) (정보재로서의 문화유산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아시아 거점 도시, 건축물

- ('24년) 문화예술 '아시아 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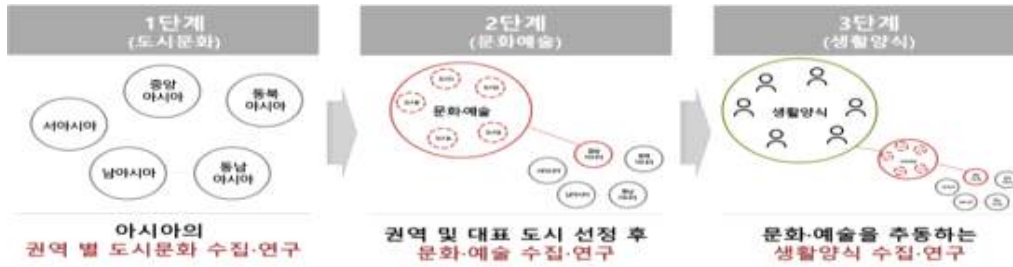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아시아 공예품	디지털헤리티지(Digital heritage) (정보재로서의 문화유산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상징, 문양, 패턴

- ('25년) 생활양식 '아시아 생로병사'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아시아 생로병사	디지털헤리티지(Digital heritage) (정보재로서의 문화유산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결혼, 장례, 의례

- * 민주평화교류원의 경우 총 사업비 타당성 재조사, 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진행 중으로 향후 선정 필요

○ 콘텐츠 수집·연구 단계별 절차



□ 연도별 로드맵

년	구분	업무별 주요 내용
2021	핵심테마	- 포스트 휴머니즘(미래사회 적합한 휴머니즘 재탐색)
	수집·연구·교류	- (문화전당의 아시아성 공표) <아시아문화테마위원회>와의 공동연구 협의체 활용 - (아시아문화연구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국가 별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담론 공유 - (환경주제 아시아 영화 수집·연구) 미세먼지, 기후난민·재해건축 등 - (국제교류협력) 플랫폼 역할 중심의 단계적 세부전략 세워 국제파트너 지원·협력
	창·제작	- (문화전당의 문화기술(CT) 재개념화)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아시아문화가치 구현 기술 - (상설 공간 조성 1) 상설체험관 신설, 전당 브랜드 성립에 중추역할 제고 - (온라인콘텐츠 성과분석) 중요성 감안 온라인 콘텐츠 기획총괄 및 통계 운영
2022	핵심테마	- 에코비즈니스(문화기술(CT) 기반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발굴)
	수집·연구·교류	- (환경주제 아시아 영화 수집·연구 확대) 아시아 환경 영화제 개최 준비 - (환경주제 스토리 발굴) 전시·공연 콘텐츠 개발 자원 확보
	창·제작	- (상설공간 조성 2) 랩(Lab) 물리적 공간 마련, 매개자 시스템 도입 - (디지털헤리티지 비즈니스 모델 기획) 아시아문화지도 프로토타입 고도화, 유통방식 관련 외부 컨설팅 활용해 전문화 도모 - (아시아 대표축제 지역연계) 지역 주민들 주도 기획, 학교·학생 참여 역할 부여 * 일본 스키야키 미츠 더 월드뮤직 페스티벌 사례 - (환경주제 아시아 영화제 개최)
2023	핵심테마	- 특화콘텐츠 1단계 <아시아 거점도시> (도시 철학·디자인, 건축물)
	수집·연구·교류	- (거점도시 연구조사) 거점도시별 건축철학, 특징 등 심층 조사 - (ACC형 ODA 사업 추진) ODA 사업 자체 기획전환, 전담 담당자 추가 배치
	창·제작	- (친숙한 일상 콘텐츠로 유도) 도시건축 관련 캐릭터, 일상생활 등 연계 - (아시아권역 뉴미디어아트(넷아트, 웹아트)) 전년도 발굴한 환경 주제 활용
2024	핵심테마	- 특화콘텐츠 2단계 <아시아 공예품> (상징, 문양, 패턴)
	수집·연구·교류	- (문화·예술 연구조사) 아시아 결혼, 장례 등 의례 관련 심층 조사 * 공예품 관련 업무체결 기관(이란 타브리즈이슬람예술대학교), ACC 창작공간네트워크, 아시아컬처네트워크, 연합학술대회 등 활용
	창·제작	- (디지털헤리티지 유통) 전년도 발굴한 아시아 거점도시 활용 - (아시아·지역사회 공예품 유통) 전당 문화상품점(온·오프라인) 활용한 유통 지원 - (아시아 도시소재 아시아 영화제 개최)
2025	핵심테마	- 특화콘텐츠 3단계 <아시아 생노병사>(결혼, 장례 등 의례)
	수집·연구·교류	- (생활문화 연구조사) 결혼·장례 등 의례 관련 자료 심층 조사 - (통합리포트 성과 가시화) 특화콘텐츠 1~3단계 총괄한 도시문화, 문화예술, 생활양식에 이르는 결과물 연구보고서 제작
	창·제작	- (디지털헤리티지 유통) 전년도 발굴한 아시아 공예품 활용 - (수공예 장인 등 소재 아시아 영화제 개최)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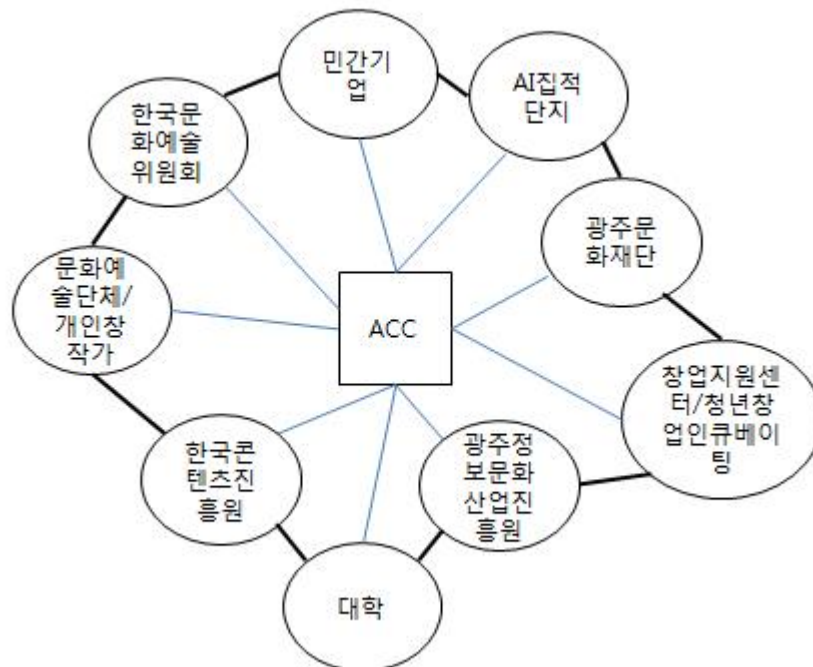
3-1. 지역과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할까?

전당이 문화적 폭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기관, 문화예술단체, 개인창작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광주권역에는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현재 조성중인 AI단지 있다. 나주혁신도시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다. 이러한 문화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개인 창작가, 민간기업, 특히 청년창업가 등과의 협업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으로 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관심증과 기대증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 민간영역 :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인 > 광주시민, 전남도민> 전국의 문화예술인> 전 국민
- 정부영역 : 문체부 > 광주광역시> 중앙정부 일부 부처
- 아시아권역 : 전당 행사 참여 경험자 > 아시아 권역의 문화예술인 >

이러한 점들을 상정하고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이러한 망상(網狀)형 네트워크는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ACC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보

완할 수 있으며, 또한 ACC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ACC를 중심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작/생산 - 매개 - 향유/소비>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ACC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기관장들의 형식적 교류가 아니라, 각 조직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팀장급-사람들의 협업구조를 굳건하게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서 각각의 사업을 기획하고, 이 내용을 공유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화리더십이 형성될 것이다. 문화리더십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요구된다. <①지역 내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 그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거점'이 있는가 ②지역 내에 위기감,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가 ③명확한 신념·이념을 갖고 행동하는 핵심적 인물이 있는가 ④ 핵심적 인물을 중심으로 공통의 목적·목표를 지향해서 함께 움직이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러한 ①~④를 충족할 때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협치구조가 작동되며, 문화리더십이 형성될 것이다.

3-2. 전당의 '문화적 폭발력'은 어떻게 발휘될까?

ACC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1) 전당과 광주

- ① 전당에서 생산된 문화에너지, 폭발력이 도시로 확산, 도시 전체의 문화력 향상
- ② 전당을 중심으로 7대 문화권→문화터→문화방 등 네트워크 형성과 확산
- ③ 전당 내 문화예술, 기술과 산업, 정보, 인프라를 주축으로 광주 문화산업클러스터, 광주전남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육성 거점 기능
- ④ 다양한 형태의 LAB을 창안하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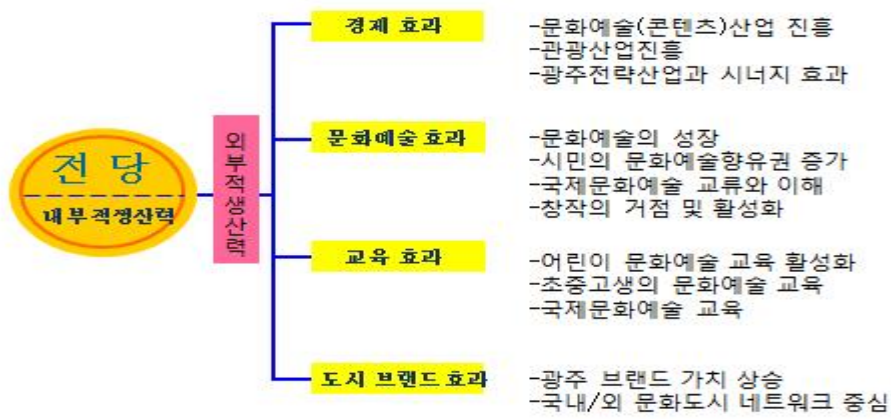
2) 전당과 전국

- ① 전당에서 생산되는 공연.전시.교육 등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 국민의 문화향유, 창작 진흥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 ② 특성화된 문화도시에 대한 교류기회 확대 및 문화콘텐츠 제공

3) 전당과 아시아

- ①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창조, 연구, 교육 및 향유 기능이 결집된 융합적 순환구조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 역할,
- ② 세계의 문화도시, 국제문화기구, 문화예술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활성화

ACC의 문화적 폭발력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세분화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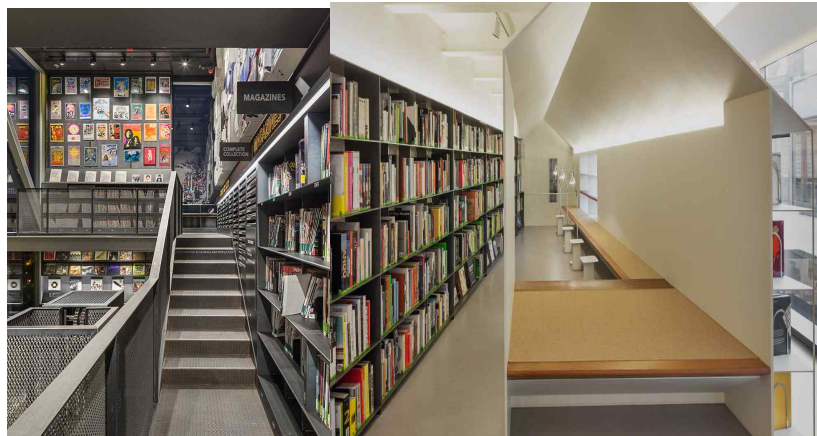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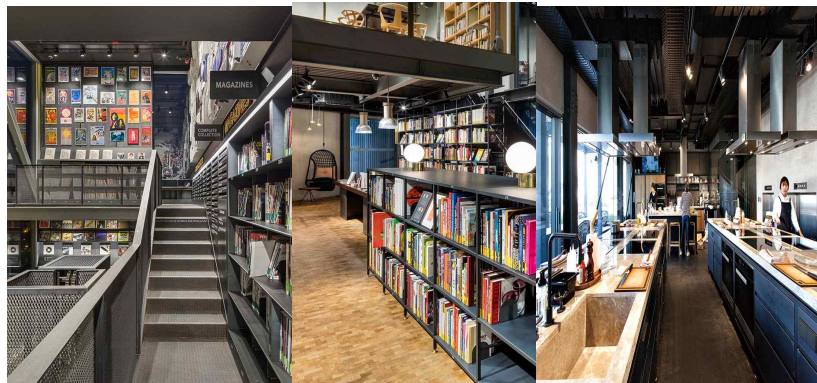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 중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통해 문화예술적 지원과 기여를 하는 사례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라이브러리 위치 및 특징	
네이버 그린팩토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건축, 예술 등 책 1만7000여 권	기업 라이브러리 위치 특징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요리 서적 1만여 권, 향신료 190종 셀프 쿠킹 코너 마련	
유직 라이브러리 서울 용산구 한남동 LP 1만여 개, 전문 음악 서적 4700여 권	
트래블 라이브러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여행 서적 1만4000여 권 내셔널지오그래픽 1888년 창간 이후 전권 보유	
디자인 라이브러리 서울 종로구 가회동 디자인 서적 1만6000여 권 디자인매거진 'DOMUS' 1928년 창간 이후 전권 보유	
현대차 현대모터스튜디오 경기 고양시 대화동(고양점) 서울 강남구 논현동(서울점) 경기 하남시 장우동(하남점) 3600여 권 자동차 서적, 자동차 전시 및 시승	
CJCGV 씨네 라이브러리 서울 중구 중무로 영화 서적 및 시나리오 1만여 권, 영화 해설 강연	



<네이버 그린 팩토리>



<현대카드의 라이브러리>

3-3. 지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지역은 우선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 양성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각급의 교육기관은 물론, 지원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광주는 ACC를 통해 <문화-창의>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력은 창의력을 지닌 인력일 것이다. 어느 도시가 문화-창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창의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창조성 지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City and Creative Class*, Routledge, 2005.)

인재 (Talent)	창조계급의 구성비 (Creative Class)	전체 노동인구 중 아티스트, 디자이너, 엔터테이너, 컴퓨터 기술자, 건축가, 연구자 등 지적·문화 예술적 창조성을 발휘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
	인적자본 지수 (Humane Captiral Inex)	전체 인구 중 대학졸업 이상 인구의 비율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인재 (Scientific Talent)	전체 인구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비율
기술 (Technology)	창발성 지수 (Innovation Index)	전체 인구 대비 전매특허(특허·실용신안 등)를 받은 사람의 비율
	하이테크 지수 (High-Tech Index)	하이테크 공업생산액의 전국 대비 지역의 비율
관용성 (Tolerance)	게이 지수 (Gay Index)	게이·레즈비언 인구의 전국 대비 지역의 비율(미국/캐나다에서만 적용)
	보헤미안 지수 (Bohemian Index)	전체 인구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
	인종 지수 (Melting Pot Index)	외국인등록자수의 전국 대비 지역의 비율

향후 지역에 요구되는 자본은 '뇌(腦)와 심(心)'에 기반한 '지적-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은 바로 창의적 인재에서 구축된다. 광주는 바로 이러한 '인재+기술+관용성'을 도시에 확산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제4강좌

지역 문화기관들과 문화전당

황 풍 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전당! 지역상생의 새 출발로

- 지역주민/예술가/문화단체와의 관계 모색
- 황풍년(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전당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 장소성과 역사성에 기반한 아카이빙 추진

○ 2010문화자원세미나. 별별 아바구동

- 2010.9.7~12.14(총 6회)
-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 3층

○ 목적

- 지역내 문화전문가들의 소통을 통한 문화자원 아카이빙 의의 공유 및 발전적 대안논의의 장
- 지역문화자원 발굴, 수집 모범사례 확산 계기 마련

○ 기대효과

-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전문가 발굴 및 상시적인 교류 협력 채널

○ 참여 대상

- 해당 주제 관련 지역 전문가 등 행사별 20~30명

○ 세부 내용

- 1차 전라도 기록이야기/ 2차 현장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기록/ 3차 지역의 삶과 문화의 기억(지역문화원 이야기)/ 4차 문화예술창작단체의 아카이빙 현황과 대안/ 5차 향토지리연구를 통한 지역문화의 재발견



- *전라도 마을과 사람의 기록(텍스트 및 이미지)
하드디스크 용량 700GB, 16만 개 사진파일
- *분류기준 통한 보존체계 정립, 적절한 활용법 모색
- *전라도 고유 자원(음원, 말, 술, 공예품)확보 후 콘텐츠화 필요



광주-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시킨 한국의 상징적 도시/옛 전남도청의 역사성/전당의 내용을 채울 이정표 탐색/아시아의 시장, 아시아의 포구/전라도 오일장 154를 거점으로... (공감-추진-중단)

전당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 전당의 토대, 지역성에 대한 탐색

- 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갈 콘텐츠에 대한 준비팀의 고심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먼저 구축하는 데 있었다.
- 아시아문화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출발이 전당이 위치한 광주, 나아가 전라도라는 지역의 문화정보 구축이라는 인식은 지역내 다양한 문화영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 문화전당이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지역의 많은 문화자산들이 새롭게 수집, 정리되고 관련 활동들이 전당을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별별이바구통'이라는 제목에서 연상되듯이 지역의 창작자들과 기획자들, 매체 종사자들, 학계와 예술단체 등을 아우르는 여러 층위의 관련자들이 활발한 참여속에서 전당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 지역과 밀착하는 전당의 미래를 낙관했다.
- 전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2010년 준비단계의 초심과 지역성에 대한 인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조직과 업무를 유사하게 승계하기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면 기왕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더 확고한 전당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차별적인(유일한)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광주문화재단과 협력사업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성 격 :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전문 및 아마추어예술가, 청년동아리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예술을 개척로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흥겨운 문화난장
- 기 간 : '17.4. 1~12.16(30여회) / 매주 토요일 / '18. 4. 7~ 11. 24(28회) / 매주 토요일
'19. 4.20. ~ 11.26. 총26회 운영 / '20.9.25.~11.15. 총 16회
20년 온라인 프린지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유튜브 송출, 조회수 9,309회,
10. 31.~11.1. /11.7.~8. 광주거리예술축제, 세계적 수준의 18개 거리예술단체 44회 공연
- 장 소 : 문화전당 주변(5. 18민주광장, 금남로)
- 내 용 : 버스킹, 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 무용, 연극, 게임 등
- 각종 기념식, 문화교류행사, 소규모 축제 등과 연계 운영
- 주최/주관 : 광주시/광주문화재단
- 사 업 비 : 13.5억원(2017) / 15억원(2018) / 12억원(2019) / 10억6천만원(2020)
- 아시아문화전당 협력 강화
→ 하늘마당, 어린이문화원 입구, 아시아문화전당 광장 및 입구 등(23회 공연)

■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 성 격 : 연극, 무용, 시각예술, 음악, 댄스 등 세계 각국의 전문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예술성 있는 작품을 위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축제
- 기 간 : '17.6. 2(금)~6. 4(일) / '18. 9. 28(금) ~ 9. 30(일) / '19. 10. 19(토) ~ 10. 20(일)
- 장 소 : 문화전당, 문화전당 주변(5. 18민주광장, 금남로)
- 내 용 : 공연, 음악, 서커스, 판타마임, 포퍼먼스 등
- 국, 내외 유망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100회(10여 개국)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문화전당/광주문화재단
- 사 업 비 : 7억원(시비 3.5, 국비 3.5), 2017 / 5억원(2018) / 4억원(2019)
※2020~21년 프린지+ACC인터내셔널 통합할 및 예산 축소/해외 예술단체 초청 없음

광주문화재단과 협력사업

ACC슈퍼클래식

- 성 격 : 세계 유명 클래식 연주자로 구성된 연간 프로그램으로 ACC 슈퍼클래식 추진
- 기 간 : 2019. 11. 15.(금)
- 장 소 : 예술극장 1
- 내 용 : 체코 야나체필하모직오케스트라 공연에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관현악곡 연주 협업
- 주최/주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원, 광주문화재단
- 추진결과 : 관람객-1,400명 / 참여예술인-71명(야나체 연주자-64명 + 광주시향 7명)
- 연주프로그램
 - 김대성 작곡 교향시 '민주'
 - S. Prokofiev(프로코피예프) : 피아노협주곡 3번 C장조, Op. 26
 - A. Dvorak(드보르작) : 교향곡 7번 D 단조, Op. 70

광주문화재단과 협력사업

아시아문화포럼

○ 2020아시아문화포럼 운영개요

- 주 제 : '문명의 전환-뉴노멀 시대, 문화 연대의 가능성'
- 기간/장소 : 아시아문화주간 '21.10.19.(월) ~ 10.21(수) / 문화전당 및 광주광역시 일원
- 참 여 자 : 2개국 32명 초청, 참여자 2,402여명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 행사내용 : 개막식, 특별대담, 학술포럼, 청년아시아문화연구단 워크숍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 2021아시아문화포럼 운영개요

- 주 제 : 'K-컬처와 아시아의 청년'
- 기간/장소 : 아시아문화주간 '21.10.13.(수) ~ 10.14(목) / 문화전당 및 광주광역시 일원
- 참 여 자 : 4개국 30명 초청, 참여자 3,300여명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 행사내용 : 개막식, 특별대담, 학술포럼, 청년아시아문화연구단 워크숍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광주문화재단과 협력사업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 운영개요

- 사업명 : 2019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 개최기간 : 2019. 10. 10. ~ 10. 13. / 3박 4일
- 주 제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보다
- 행사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
- 참여규모 : 8개국 240명 참여
- 목 적 :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 미디어아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광주 미디어아트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수립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광주문화재단 / 아시아문화원
- 사업비 : 120,000천원(시비)
- 주요내용
 - *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운영
 -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 연계 프로그램 활용
 - * 2019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본행사 개최 및 운영

광주문화재단과 협력사업

■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 운영개요

- 사업명 : 2019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 사업기간 : 2019. 3. ~ 12. ※개최기간: 2019. 10. 11. ~ 10. 18. / 8일간
- 행사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복합 6관, 하늘마당, 전당광장, 미디어 월)
- 주 제 : 평화, 화합, 하모니를 주제로 한 주제 설정(치유도시, White Magic City)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광주문화재단 / 아시아문화원
- 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주요내용 : 본 행사(개막식 공연), 주제전, 특별전, 교류전
(본 행사) : 개막식, 개막 특별공연, 주제전(몰입형 미디어아트, 다면미디어파사드, 미디어월, 야외전시)
특별전(애니메이션), 교류전(국내외 작가 교류전)
(부대행사) : ISEA 연계(조선대 현대 미디어전공 연계, ZERO1 워크숍, 서칭 다크니스),
FINA 연계(전일빌딩 미디어파사드, 송정역 LED 미디어아트)
교육(운영요원 사전교육 프로그램)

광주문화재단과 협력사업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 사업목적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발전 도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대 시민 문화활동 확산위한 상호 협력

○ 운영개요

- 주요내용 : 광주지역 문화관련 기관들이 지역문화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결성한 협의회로 광주문화기관이 간사기관으로 주축이 되 현재는 16개 지역문화예술 기관이 함께하고 있음
- 추진방향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주 문화기관 간의 협력 구심체
 - * 광주 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운영 등
- 진행내용
 - * 안건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 * 문화기관 간 지속교류를 위한 협력, 공동사업 추진
- 사업예산 : 60,000천원(출연금)

○ 협의회 운영

- 운영기간 : 2013~현재(*2013년도 출범이후 '광주문화재단' 이 지속적으로 간사기관 맡음)
- 출범일자 : 2013년도 8월
- 협의회 출범근거 : [광주문화재단 정관] 의거해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규약] 마련
 - * [광주문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 10항 및 11항
 - 10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및 11항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문화재단과 협력사업

■ 광주문화기관협의회

○ 협의회 기관: 광주광역시 또는 중앙정부의 출자·출연 문화기관(16개 기관)

연번	기관명	대표자	연번	기관명	대표자
1	광주문화재단 ★ 간사기관(2013~현재)	황봉년	9	국립광주박물관	이수미
2	광주디자인진흥원	위성호	10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하경완
3	광주전남연구원	박재영	11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목
4	광주비엔날레	박양우	12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구종진
5	광주시립미술관	전승보	13	국립광주과학관	김선옥
6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1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흥진 (직무대리)
7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조현용	15	광주테크노파크	김선민
8	아시아문화원	이기표	16	광주관광재단	남성숙

○ 연차별 추진현황

년도	주요 진행내용	년도	주요 진행내용
2013	문화기관협의회 결성 및 협의회 규약 확정	2018	(포럼 개최) 「문화다양성의 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 개최
2014	(정책포럼 개최)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소속 각 기관별 현황 및 전달과의 연계방안 발표	2019	(책자 제작) 민간단체 시설정보, 사업소개, 기관안내 등 정보지 발간 '광주문화기관단체 디렉토리북 제작
2015	(정책포럼 개최) 혁신도시 문화관련 기관과 지역 문화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한 기초발제 등	2020	(책자 제작) 광주문화공간매거진 '걷는 광주' 제작
2016	(실무자 연수) 2016광주비엔날레 및 지역문화 탐방 실무자 연수	2021	(책자 제작중) (가칭)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여행
2017	(세미나 개최) 새 정부 문화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광주·전남 문화 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		

전당의 새로운 출발과 방향은?

■ 전당을 향한 해묵은 기대와 상상

- 전당은 광주에서 출발, 한국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관계 맺기를 해야 한다. 발 딛고 선 자리가 광주라는 사실에서 탄탄한 지역성(지역사회와의 연대, 주민 참여, 로컬콘텐츠)만이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이다.
- 전당 조직과 운영의 이원화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전당장 체제를 만들어 지역 문화기관들과의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시작되길 희망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역량을 키우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고(기획자 양성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5대 권역으로 전당의 사업들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전당이 주도적으로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기관들과의 협업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면 광주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국가기관으로서 역할 기대감)
- 광주시민들은 물론 수많은 장르의 예술인들이 문화전당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도록 연중 유용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공간 활용의 문턱을 낮추고 개방적인 운영 등을 통해 일 년 내내 역동적인 전당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 민주성지 광주의 심장, 옛 전남도청의 장소성과 역사적 맥락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방향을 다시금 모색하자.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의 자람이요 문화도시 광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길은 여럿이 함께 상생하는 튼튼한 거버넌스 구축(대동광주)이 필수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21 생통강좌(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21. 11. 02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1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